

미국과 전 세계에 각종의 테러와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.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?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고 했다. 그것이 유월절의 언약이다. **현대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은 새해 첫 날을 “로시 하샤나”(Rosh Hashanah)라고 부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.**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과거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, 한편으로는 선행을 하면서 그 날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(나팔절). **실제로 성경의 새해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달이고, 그 달의 14일부터 본문에서 시작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.**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유일한 양의 피,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. 지금 유대인들이 이 속에 있는 언약을 놓치고 산다. 끝없는 전쟁과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. 유월절의 언약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히 누릴 응답과 축복이 있다.

1. 영원한 해방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.

- 1) 유월절 언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면서 시작된 것이다.
 - ① 요셉 시절에 애굽에서 최고의 명예와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.
 -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.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다.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까지 살리면서 쓰임받은 것이다.
 - ② 첫 인생 아담과 하와도 그런 축복 속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다. 그런데 그것을 다 놓쳐버린 것이다.
 - 이스라엘에게 400년 노예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것이다. 인생이 무엇을 놓치고 사는 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었다.
- 2) 그 시작이 창3장이었다. 첫 인생 아담으로 인해 적어도 세가지 저주가 온 인류에 온 것이다(롬5:12)
 - ① 원죄의 저주이다. 첫 인생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생에 죄의 본성이 자리잡고, 끝없는 타락이 계속되었다(롬3:10)
 - ② 사단의 저주이다. 인생이 범죄하도록 속인 자가 있었다. 지금도 세상과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(요8:44, 요14:30)
 - ③ 영원한 저주이다. 인간은 그 원죄의 본성과 사단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 나올 수가 없다. 이유를 모르는 문체, 고통, 저주가 가정과 가문을 통해 반복된다(운명). 죽어서도 그 마귀 따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간다(마25:41)
- 3)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 나오는 길을 열어셨다.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것이다. 그것이 유월절의 축복이다.
 - 양을 죽여 문에 그 피를 발랐는데, 모든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허락되었다. 그리스도의 구원이다.
 - ① 양의 피를 바른 날,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먼저 애굽의 첫 아들에게 임한 것이다(그리스도의 왕권).
 - 그들이 목이 꺾여 죽었다.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던 날에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것이다(창3:15의 성취)
 -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것이다. 부활로 처절히 박살났다(고전15:55-57).
 - ② 양의 피를 바른 날,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간 것이다(그리스도의 제사장권).
 -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다. 편애한 것도 아니다. 그들이 피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다(출12:13).
 -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, 그 분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(히9:12, 히9:15)
 - ③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, 일심, 전심, 지속으로 가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(그리스도의 선지자권)
 - 세상 사랑하지 말라(요일2:10. 환경, 현실 바라보지 마라(골3:1). 사람 바라보지 마라(히12:1)
 - 그때 내가 사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.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되고, 자녀, 가문, 교회,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.

2. 영원한 가족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.

-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양을 죽여 피를 바르고, 그 양의 고기를 전 가족이 먹게 했다(성찬식의 시작)
 - 1)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겨진 몸으로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(엡2:19)
 - 중국어, 한국어도 가족을 식구(食口)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나왔다고 본다. 함께 먹는다는 뜻이다(계3:20).
 - 유대인들이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것이고, 세대 차이, 문화 차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.
 - 2) 여기서 다민족 사역, 237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야 한다(이방인의 돌)
 -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다. 처음부터 하나였다.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,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결과로 나온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서로 빼앗고, 죽이고, 전쟁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.
 - 미국과 전 세계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이다(엡2:17-18). 복음만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.
 -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고, 내가 도울 일이 있는 것이다. 모든 인간 관계를 여기서 풀어야 한다.
 - 3)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후대(가정, 교회, 현장 속에)는 전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이다(어린이의 돌).
 - 유대인들이 정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.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 후대를 살린 것이다.
 - 우리가 힘을 모아 후대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것이다.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주어야 한다. 이 피의 언약을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붙잡게 하고(24절),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한 유일한 길임을 전달하라는 것이다(27절)
 - 이 언약 위에서 진정한 사랑도 나오고, 배려도 나오고, 헌신도 나오는 것이다.

3. 영원한 승리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.

-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 나올 때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(41절).
 - 1) 이제는 더 이상 죄에, 세상에, 사단에 당하고, 짓밟히고, 놀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.
 -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이다.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(마12:28, 눅17:21)
 - 2)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, 누리라.
 - 내가 있는 자리에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도록 기도하고, 하는 일에 축복의 증거가 나오도록 기도하라(창39:5).
 - 무엇보다도 거기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, 진도 운동이 일어나고, 병든 자가 치유되도록 하라(행8:4-8).
 - 멀쩡한 사람들인데, 숨은 우울증, 공황 장애, 분노 조절 장애, 숨은 중독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.
 -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 영적 문제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, 혼자서 조용히, 계속 흑암을 꺾으라.
 - 3)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교회의 기도 파수꾼, 영적 군사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을 잊지 마라.
 - 햄릿트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과 가문과 부모까지 살릴 수 있다.
 -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전쟁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살리는 진짜 썩밋, 영적 썩밋이다.
 -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해서 썩밋 된 것이 아니다. 매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린 것이다(창39:2-3)
 - 다윗이 악기 연주 잘해서 썩밋 된 것이 아니다.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졌다(삼상16:23)
 - 다니엘이 그냥 똑똑해서 썩밋 된 것이 아니다. 늘 기도 속에 산 사람이다(단6:10 위기에도 “전에 행하던 대로”)

결론-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대로 행했다고 했다(28절). 믿고,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완성이다.